

# 살푸리와 도살푸리와 동살푸리의 비교

李 輔 亨

〈서울대 음대 강사〉

《차 례》	
1. 머 리 말	1) 도살풀이 모리 발빠드레
2. 시나위圈 巫歌의 長短構成	2) 살풀이 안진반
3. 長短에 따른 巫歌辭說의 要因	3) 동살풀이 진양
4. 音樂的 特徵	5. 맺 는 말

## 1. 머 리 말

韓國民謠의 音樂的 特徵이 地域에 따라 다른 점이 있는 것과 같이 韓國巫歌의 音樂적 特徵 또한 지역마다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은 대충 알려져 있다. 巫歌의 伴奏로 旋律樂器가 시나위를 演奏하는 地域은 南漢江 以南 小白山脈 以西地域이며, 좀 더 자세히 말해서 京畿道 南部, 忠淸北道 西部, 忠淸南道, 全羅道, 慶尙道西部이다.<sup>(1)</sup> 이 地域의 巫歌의 音樂的 特徵을 보면 巫歌의 旋律이 시나위목(육자백이목)으로 되어 있고 巫歌의 伴奏樂器가 피리, 젓대,奚琴, 長鼓, 징으로 編成되어 있고 旋律樂器들이 巫歌伴奏로 시나위를 연주하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巫歌의 長短 이름을 보면 地域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으니 시나위圈의 巫歌도 地域的인 차이가 있다는 問題가 나온다. 京畿道南部 巫歌에 쓰이는 장단을 보면 도살푸리(섬채), 모리, 발빠드래, 덩덕궁이, 가래조, 삼공잡이가 쓰이고 그 밖에 중모리, 중중모리가 쓰인다.<sup>(2)</sup> 忠淸道와 全羅北道 巫歌에 쓰는 장단을 보면 살푸리, 덩덕궁이, 시님장단, 안진반, 외장구가 쓰이고 그 밖에 중모리 중중모리가 쓰인다.<sup>(3)</sup> 全羅南道 巫歌에 쓰이는 장단

(1) 李輔亨, 「시나위圈의 巫俗音樂」 文化人類學 第四輯 (서울: 韓國文化人類學會 1971), pp. 79~86.  
 (2) 上掲書 p. 81. 朴憲鳳, 「진쇠장단 의 十一장단」 無形文化財調查報告書第二八號 (서울: 文敎部 1966) pp. 6~15.  
 (3) 李輔亨, 「巫樂長短考」 文化人類學 篇三輯 (서울: 韓國文化人類學會 1970) pp. 33~47. 韓萬榮 李輔亨, 「恩山別神祭의 音樂的 研究」 民族音樂 創刊號 (서울: 서울大學校 東洋音樂研究所 1977) pp. 61~81.

을 보면 동살푸리(안당), 덩덕궁이, 대왕놀이, 진양이 쓰이고 그 밖에 증모리 증중모리가 쓰인다. (4)

덩덕궁이는 자진모리나 자진굿거리와 같은 장단으로 시나위圈에 두루 쓰이는 것이다. 또 시나위圈 巫歌에는 章節形巫歌나 告祠唱과 같은 특이한 巫歌에 증모리 및 증중모리가 두루 쓰인다. 경기도 삼공잡이는 느린 증모리장단이므로 경기도만의 독특한 것이 못된다. 경기도의 가래조와 충청도 전라북도의 시님장단과 전라남도의 대왕놀이는 모두 엇모리장단과 같은 것이다. 전라북도 의장구장단은 경기도나 전라남도에서도 바리공주에서 쓰이는 장단과 같다.

이렇게 같은 것을 추려내면 경기도의 도살푸리·모리·발버드래, 충청도 전라북도의 살푸리·안진반, 전라남도의 동살푸리·진양이 남는데 이것들의 차이를 밝히면 시나위圈 巫歌의 地域의 차이를 알 수 있겠다. 그런데 도살푸리와 살푸리와 동살푸리는 모두 살푸리라는 말이 들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다른 장단과 달리 이들 장단의 이름에 같은 말이 끼어 있을 때에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을 것 같다. 나는 이 세장단을 비교하여 시나위圈의 巫歌의 지역적인 차이를 밝히고 싶다.

## 2. 시나위圈 巫歌의 長短構成

巫儀式은 目的에 따라서 집안굿(安宅굿), 마을굿(洞祭·部落祭), 오구굿(慰靈祭), 그리고 손님굿(痘神祭)로 나누어진다. (5) 다시 말하면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의 제수굿·집굿·안택굿·천신굿,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의 도신굿·성주굿과 같이 個人的 家庭에 財福·壽福·康寧을 축원하는 굿을 집굿 또는 집안굿이라 하겠고,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의 대동굿, 강원도 경상도의 별신굿·서낭굿, 전라도 충청도의 별신굿·수륙제와 같이 마을 주민들의 豐農·豐漁와 같이 마을에 財福이 있고 無病無災하여 和平하기를 비는 굿을 마을굿이라 하겠고, 경상도의 오구굿·해원굿, 전라도 충청도의 시꿈굿, 제주도 황해도 평안도의 시왕굿, 함경도 망무기굿, 경기도 지노기굿과 같이 험하게 죽거나 恨이 맺혀 죽은 이의 넋을 전저 위로하고 恨을 풀어 저승으로 천도하는 굿을 오구굿이라 하겠다. 손님굿은 痘病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굿으로 별상굿 또는 마마굿으로도 불린다.

(4) 崔吉城, 「巫俗」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第一冊 全羅南道編 (서울: 文公部 文化財管理局 1969) p. 210.

(5) 任哲宰, 「韓國巫俗研究序說(Ⅱ)」亞細亞女性研究 第10輯 (서울: 淑明女子大學校 亞細亞女性研究所 1971), p. 173.

이 곳들은 곳의 機能的 節次에 따라 다시 여러 작은 곳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방에 따라 「곳」 또는 「거리」 또는 「석」이라고 달리 부르기로 한다. 시나위圈에서 예를 들면 水原地方 집곳은 황토물림, 초부정, 안반 고시례, 청궁맞이, 성주곳, 제석곳, 조상곳, 구능곳, 서낭곳, 손님곳, 뒷주곳, 계면곳, 뒷전으로 構成되어 있고 扶安地方 수록제는 용왕맞이, 서낭곳, 손님곳, 칠성곳, 장자풀이, 제석곳, 조상곳, 축원, 조상곳, 질뒀기, 중천맥이로 構成되어 있고 靈岩地方 시꿈곳은 혼맞이, 안당, 선부리, 성주, 제왕, 액맥이, 제석, 오구(바리공주), 넋물림, 고풀이, 씨금, 하적(엄불), 대신(중천맥이)로 構成되어 있다.

巫歌의 장단은 각 거리마다 얼마쯤 다르게 構成되어 있고 또 地域마다 다르게 되어 있다. 水原地方 집곳의 巫歌의 長短構成은 다음과 같다.<sup>(6)</sup>

- (巫舞 및 儀式의 伴奏音樂 장단은 여기에 적지 않았다.)
- 황토물림……덩덕궁이(자진곳거리·당악)
- 초부정……가래조·도살푸리·모리·발버드래·덩덕궁이
- 안반 고시례…외 장구 (장구를 치지 않는다)
- 청궁맞이……가래조·도살푸리·모리
- 성주곳……외 장구
- 제석곳……곳거리·도살푸리·노래가락
- 조상곳……가래조·삼공쟁이·도살푸리·덩덕궁이
- 서낭곳……곳거리·덩덕궁이
- 손님곳……도살푸리·모리
- 뒷주곳……덩덕궁이
- 계면곳……덩덕궁이
- 뒷전……도살푸리·모리·덩덕궁이

扶安地方 수록제 巫歌의 長短構成은 다음과 같다.<sup>(7)</sup>

- 용왕맞이……안진반·덩덕궁이
- 서낭곳……안진반·살푸리·시님장단
- 손님곳……안진반
- 칠성곳……외 장구·살푸리·덩덕궁이
- 장자풀이……외 장구·안진반·살푸리·덩덕궁이

(6) 朴憲鳳, 진쇠 장단의十一장단 無形文化財調查報告書 第二八號(서울: 文敎部 1966), pp. 6~10.  
 劉起龍, 「시나위」 無形文化財調查報告書 第八十五號(서울: 文化財管理局 1971), pp. 12~18.  
 李輔亨, 「巫俗音樂」 韓國民俗綜合報告書 第九冊 京畿道編(서울: 文公部 文化財管理局 1978), pp. 365~367.  
 1975年 水原市 梅橋洞 李龍雨氏宅 집곳. 女巫 林福男(本 55세), 장구: 池甲成, 피리: 方仁根, 대금: 李龍雨, 奚琴: 全泰用

(7) 任哲宰, 苗浦巫樂, 無形文化財調查報告書 第七九號(서울: 文化財管理局 1970).  
 李輔亨, 「巫樂長短考」 上同

제석곳.....살푸리 · 시님장단 · 살푸리 · 중모리 · 중중모리 · 살푸리 · 시님장단  
 조상곳.....살푸리 · 중모리 · 시님장단 · 살푸리  
 축원.....불규칙장단(외장구)  
 질뒹기.....살푸리 · 중모리 · 시님장단 · 살푸리  
 중천맥이.....살푸리 · 중모리 · 덩덕궁이

靈岩地方 시꺼곳의 巫歌의 長短構成은 다음과 같다.<sup>(8)</sup>

혼맞이.....동살푸리  
 선부리.....진양 · 동살푸리  
 성주.....덩덕궁이 · 동살푸리  
 계왕.....동살푸리  
 액맥이.....덩덕궁이  
 제석.....진양 · 대왕놀이 · 동살푸리 · 중모리 · 중중모리 · 덩덕궁이  
 오구.....외장구  
 냇올림.....동살푸리  
 고틀이.....동살푸리 · 덩덕궁이  
 씨금.....동살푸리 · 덩덕궁이 · 중모리 · 동살푸리  
 하적.....진양 · 중모리 · 중중모리  
 대신(중천맥이).....외장구

京畿道 집곳에서 長短構成에 따라 巫歌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덩덕궁이.....황토물림 · 텃주곳 · 계면곳 · 시낭곳
- ② 외장구.....안반고시례 · 성주곳
- ③ 도살푸리+모리.....손님곳
- ④ 도살푸리+모리+덩덕궁이.....뒹전
- ⑤ 가래조+도살푸리+모리.....칭궁맞이
- ⑥ 가래조+도살푸리+모리+덩덕궁이.....초부정
- ⑦ 가래조+삼공잼이+도살푸리+모리+덩덕궁이.....조상곳
- ⑧ 기타.....제석곳

京畿道 집곳 巫歌의 長短構成을 보면 살푸리+모리, 도살푸리+모리+덩덕궁이 또는 가래조+도살풀이+모리+덩덕궁이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全羅北道 수록계에서 長短構成에 따라 巫歌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안진반.....손님곳
- ② 외장구.....축원

(8) 1977年 7月 18日 全南 靈岩郡 도포면 수산리 羅鍾連氏宅 시꺼곳. 巫女 鄭花點(女 35세), 朴五男(女 63세), 장구 : 朴載成(男 40세), 피리 : 韓周鎭(男 48), 대금 : 林元柱(男 68세)

- ③ 안진반+덩덕궁이……용왕맞이
- ④ 외장구+살푸리+덩덕궁이……칠성굿
- ⑤ 안진반+살푸리+시님장단……서낭굿
- ⑥ 외장구+안진반+살푸리+덩덕궁이……장자풀이
- ⑦ 살푸리+중모리+덩덕궁이……중천메이
- ⑧ 살푸리+중모리+시님장단……조상굿·질뒹기
- ⑨ 기타……계석굿

全羅北道 수록제에서 長短構成에 따라 巫歌를 추려 보면 살푸리+시님장단, 살푸리+덩덕궁이, 안진반+살푸리+덩덕궁이, 안진반+살푸리+시님장단, 외장구+살푸리+덩덕궁이, 외장구+살푸리+시님장단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全羅南道 시김굿에서 長短構成에 따라 巫歌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동살푸리……혼맞이·제왕·넋을림
- ② 덩덕궁이……액뻘이
- ③ 진양+중모리+중중모리……하적
- ④ 덩덕궁이+동살푸리……성주
- ⑤ 외장구……오구·대신
- ⑥ 동살푸리+덩덕궁이……고풀이
- ⑦ 동살푸리+중모리+덩덕궁이……씨금
- ⑧ 진양+동살푸리……선부리
- ⑨진양+대왕놀이+동살푸리+중모리+중중모리+덩덕궁이……계석

全羅南道 씨김굿에서 長短構成에 따라 巫歌를 추려보면 동살푸리, 동살푸리+덩덕궁이, 진양+동살푸리+덩덕궁이 장단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위 巫歌에서 엽불·성주풀이·노래가락·만수반이·중타령과 같이 歌謠形 巫歌의 장단으로 쓰이는 중모리·중중모리·굿거리·엇모리와 같은 장단을 빼면 시나위體의 巫歌는 다음과 같이 構成됨을 알 수 있다. 京畿道 南部 巫歌는 도살푸리가 주가 되고 그 앞에는 가래조가, 뒤에는 모리 및 덩덕궁이가 붙는다.

가래조—도살푸리—모리—덩덕궁이

全羅北道 忠淸南道 巫歌는 살푸리가 주가 되고 그 앞에는 외장구 또는 안진반이, 뒤에는 시님장단 또는 덩덕궁이가 붙는다.

외장구 } — 살푸리 — { 시님장단  
안진반 } — 덩덕궁이

全羅南道 巫歌는 동살푸리가 주가되고 앞에는 진양이, 뒤에는 덩덕궁이가 붙는다.

진양—동살푸리—덩덕궁이

### 3. 長短에 다른 巫歌辭說의 要因

모든 巫歌가 같은 要因이 같은 順序대로 불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몇가지 要因이 順序대로 불려지는 共通점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任哲宰님은 ① 곳에 들어 가기 위하여 불리우는 前歌, ② 석의 名稱을 말하는 대목, ③ 祈主의 姓氏와 祝하는 場所를 말하는 대목 ④ 精誠 들여서 擇日하고 準備했다는 告白, ⑤ 請入하는 神에 관한 神話 叙述, ⑥ 神의 加護, 恩寵을 비는 말, ⑦ 神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부르는 노래로 추려진다고 하였고<sup>(9)</sup> 나는 全羅北道 巫歌에 쓰이는 안진반·외장구·살푸리·덩덕궁이·시님장단과 같은 장단이 巫歌의 要因에 따라 가려 쓰이는 것을 밝힌 바 있다.<sup>(10)</sup>

全羅北道の 巫歌에서 ①~⑤와 같이 精神節次에는 외장구·안진반·살푸리가 쓰이고 ⑥ ⑦과 같이 祝願節次에는 신님장단·덩덕궁이가 쓰인다.

京畿道の 巫歌에서 請神巫歌인 請拜巫歌에는 가래조가 쓰인다. ①~⑤와 같은 請神節次에는 가래조 밖에도 흔히 도살푸리장단이 쓰인다. ⑥⑦과 같이 祝願節次에는 대개 모리나 덩덕궁이가 쓰인다.

全羅南道の 巫歌에서 ①~⑤와 같은 請神節次에는 진양장단이나 동살푸리장단이 쓰인다. ⑥⑦과 같이 祝願節次에는 덩덕궁이가 흔히 쓰인다.

### 4. 音樂의 特徵

#### 1) 도살푸리(섭채)·모리·발빠드래

京畿道 巫歌에 쓰이는 도살푸리는 2分拍 보통 빠르기 6拍이며 4分の 6拍子로 적을 수 있다. 장구는 흔히 「덩따, 닥따. 땅따, 닥따. 덩따, 다드라따」하고 치나 가끔 채손과 궁손을 바꾸어 變奏한다든가 잔가락을 넣어 變奏하기도 한다. 징은 每拍 1點씩 쳐서 한 장단에 모두 6點을 친다.<악보 1>

도살푸리 巫歌의 말 놓는 법은 흔히 첫장단에서 넷째장단까지는 每拍마다 두字씩 말을 놓고 다섯째장단에서 여섯째장단까지는 말을 놓지 않고 메리스마로 이끌어가므로 每長短마다 대개 8字씩 말을 놓는 셈이다. 例外로 한 두字를 앞으로 당기어 놓거나 늦추어 놓기도 하

(9) 任哲宰, 「巫俗」 韓國民俗綜合報告書 第一冊 全南編(서울:文化財管理局 1969), p. 177.

(10) 李輔亨, 上揭書

<악보 1> 도살 푸리

장구 6 4

징 6 4

<악보 2> 경기남부 제석굿 도살푸리 林福男(女55) 唱 李翰亨 採보

다섯 달 찬김 받아 - 십삭 만에 나야 노니  
 지애기 - 사주 점은 으으으 팔자 하나기 박하야 1975 수원

<악보 3> 살 푸리

장구 12 8

징 12 8

<악보 4> 전북 당산말이 살푸리 成氏 唱(女63) 임석재 採록 이보형 採보

좌우 천용 하라 방 좌우 천용 할머니  
 이 정 성을 디리라고 남생기 여복덕을

<악보 5> 안진반

장구 4 4

징 4 4

1968. 부산

고 字數가 8字를 넘으면 한 拍에 네자씩 촘촘히 놓기도 하지만 다섯째 拍 여섯째 拍을 메리스마로 끄는데는 변함이 없다, 도살푸리 旋律이 2分拍으로 되어 있고 辭說이 4·4調로 되어 있어서 말 놓는 법은 2分拍으로 놓는다. 3字의 경우에는 뒷字的 다음 拍을 빼어 넷으로 채운다. <악보 2>

다	섯	달	에	찬	짐	반	아		
십	삭	만	에	나	아	노	니		
저	아	기		사	주	보	니		

도살푸리를 점점 몰다가 모리로 돌린다. 모리는 3分拍 좀 빠른 4拍이며 8分의 12拍子로 적을 수 있다. 장구는 흔히 「덩다라다, 땅다라다, 땅다라다, 땅다라다」으로 치며 징은 「징—징, 징—징, 징—징, —징—」하고 친다. 모리장단의 말 놓는 법은 모리장단을 4拍子로 끊지 않고 12拍子로 끊었을 적에 첫박에서 여덟째박까지 촘촘히 놓고 아홉째박에서 열두째박까지는 말을 놓지 않고 메리스마로 이끌어 간다. 巫歌의 辭說이 4·4調로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이 촘촘히 말을 놓으면 2分拍으로 들린다. 모리 12拍에서 2拍을 한 拍으로 치면 每拍에 2字씩 말을 놓은 것이 되며 이것은 도살푸리 말 놓는 것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장구장단은 도살푸리에서 모리로 넘어가지만 巫歌는 변함이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도살푸리에서는 巫歌의 리듬이나 장구장단의 리듬이 모두 2分拍으로 되어 있으나 모리로 장단을 돌리게 되면 巫歌는 여전히 2分拍 리듬이 계속되고 있는데 장구장단은 3分拍 리듬으로 되어 있어 交借拍子(Hemiola)가 이루어진다.

도살푸리에서 모리로 돌릴 때 언제 돌리지 모르게 돌아간다는 말을 잽이들이 하는데 이것은 巫歌의 旋律이 도살푸리의 경우나 모리의 경우나 같은 때문이기도 하지만 장단을 돌릴 무렵에 도살푸리와 모리의 한배가 같은데 장구잽이는 도살푸리 장단을 「궁궁, 막궁, 막다, 궁따, 따궁, 따다라다」하고 變奏하여 치므로 마치 「궁궁막, 궁막다, 궁따따, 궁따다라다」하고 모리와 같이 들리게 하여 넘어 간다. 징 잽이는 도살푸리장단을 「징—, 징징, —징징—, 징징, 징—」하고 變奏하여 치므로 마치 「징—징, 징—징, 징—징, 징징—」하는 모리와 같이 들리게 하여 넘어 간다.

발버드래장단은 일명 「바작모리」라 부르며 모리를 바작 몰아가는 장단이므로 빠르기만 다를 뿐 음악적 특징은 모리와 같다.

## 2) 살푸리·안진반

忠淸道 全羅北道 巫歌에 쓰이는 살푸리는 3分拍 좀 느린 4拍이며 8分의 12拍子로 적을



수 있다. 장구는 흔히 「기덩딱따, 기덩딱따, 기덩땅따, 기덩땡따」하고 치며 징은 「징—징, 징—징, 징—징, 징—징」 하고 친다.〈악보 3〉

살푸리 巫歌의 말 놓는 법은 살푸리를 12拍으로 끝을 적에 每拍에 대개 1字씩 놓는데 巫歌辭說이 대개 4·4調로 되어 있고 도살푸리와 같이 2分拍으로 놓으므로 京畿道 모리장단의 경우와 같이 巫歌의 리듬과 장구장단의 리듬이 달라서 헤미올라가 이루어진다. 한 장단에 놓는 辭說의 字數를 보면 도살푸리나 모리는 대개 8字를 놓는 경우가 많으나 살푸리는 4字에서 12字까지 놓고 있어 一定하지 않으며 또 도살푸리는 대개 첫拍에서 넷째拍까지 촘촘히 말을 놓는데 살푸리는 첫拍에 놓는 것이 원칙이나 몇拍을 띄고 놓기도 하고 장단의 中間부터 놓기도 하여 다양하다, 먼저 2分拍으로 촘촘히 놓고 뒤에 메리스마로 끄는 점은 도살푸리나 살푸리나 같지만 메리스마의 길이가 다르다. 도살푸리는 대개 메리스마를 2拍 길이로 끝지만 살푸리는 몇拍에서부터 몇장단에 이르기까지 메리스마로 끌고 있어 길이가 다양하다.〈악보 4〉

과	우	천	용	하	라	방	과	우	천	용
할	머	니								

全羅北道 巫歌에서 조왕석이나 지신석과 같은 앉인석에서 처음 내는 안진반장단은 2分拍 보통 빠르기 4拍이며 4分의 4拍子로 적을 수 있다. 안진반은 당골이 장고를 앞에 놓고 앉아서 손수 장단을 치며 巫歌를 부르기 때문에 巫歌 辭說의 字數에 따라 몇拍이 들고 나기도 한다. 장고는 「덩다라, 덩다라, 땅땅, 덩다라」 하고 치며 징은 「징, 징징, —징, 징」 하고 치는데 辭說에 따라 몇拍이 들고 나기도 한다.〈악보 5〉

안진반 巫歌의 말 놓는 법은 2分拍으로 놓는데 안진반 4拍에서 每拍마다 대개 두字씩 말을 놓으므로 한장단에 8字를 놓는 것이지만 첫拍 둘째拍에 말을 놓고 그 뒤를 메리스마로 끌어나가기도 하고 네拍 모두 말을 놓고 다음 장단을 메리스마로 끌기도 하고 한장단과 다음장단 첫째 둘째拍까지 모두 6拍에 12字를 촘촘히 엮다가 그 뒤를 메리스마로 끌기도 하여 일정하지 않다.〈악보 6〉

### 3) 동살푸리(안당)·진양

全羅南道 巫歌에 쓰이는 동살푸리는 2分拍 보통 빠르기 4拍이며 4分의 4拍子로 적을 수 있다. 장구는 대개 「덩따, 딱따, 궁따, 따다라」하고 치고 징은 대개 「징—, 징징, —징, 징—」 하고 치지만 「징징, —징, 징징, 징—」 또는 「징징, —징, —징, 징—」 하고 변주하기도 하여 안진반과 비슷하다.〈악보 7〉

<악보6> 전북 소남석 안진반 金氏(女60)명 임성재 작곡 이보형 채보

공심은 저리진디 남산은 보이로구나  
조선은 국인디 팔만은 사또년의 1968 부안

<악보7> 동살푸리

장구  
4  
4  
4  
4

징  
4

<악보8> 전남 제석굿 동살푸리 정화점(여35)창 이보형 채보

금이 라도 금이 라도 만 - 천하 금이 라도  
이내 딸과 날 거 들랑 아 아아 아아 1977. 영암

<악보9> 진양

장구  
18  
8  
18  
8

징  
18  
8

<악보10> 전남 제석굿 진양 정화점(여35)창 이보형 채보

지이 가 하 오 시 는 구 나 아  
칠성 어 님 전 - 어 어 칠 성 - 어 으 으 으 님 전 1977. 영암

동살푸리 巫歌의 말 놓는 법은 2分拍이며 흔히 每拍마다 2字씩 놓아서 한 장단에 8字가 량 촘촘히 말을 놓으며 가끔 첫拍 둘째 拍에 4字를 놓고 나머지 두拍을 메리스마로 끝던가 또는 한장단 이상을 메리스마로 끝기도 하는데 안전반에 비하여 말을 규칙적으로 놓는 편이다. <악보 8>

금	이	라	도	금	이	라	도
제	석	님	의	금	이	라	도

全羅南道 巫歌에서 동살푸리의 序의長短으로 쓰이는 진양은 3分拍 느린 6拍으로 되어 8分의 18拍子로 적을 수 있는데 이것은 판소리와 散調에 쓰이는 진양의 한각에 해당한다. 장고는 「덩—, 궁—, 궁—, 궁—, 덩따라다, 딱—딱—」 하고 치며 징은 「징—, 징—, 징—, 징—, 징—지, 징지리징」 하고 친다. 판소리 처럼 엄격하지는 않지만 每장단의 다섯째拍과 여섯째拍에서는 소리의 맺고 풀음에 따라 약간 변주가 있다<악보 9>

진양 巫歌의 말 놓는 법은 진양 6拍 가운데 3分拍인 每拍마다 1~3字씩 말을 놓되 흔히 첫拍에서 넷째拍까지 말을 놓고 다섯째 여섯째拍에는 메리스마로 끄는 것이지만 첫拍에서 네째拍 가운데 어느 拍을 말을 놓지 않고 그냥 길게 끌고 나서 다섯 여섯째 拍에도 말을 놓기도 한다. <악보 10> 진양은 도살푸리와 같이 6拍이나 도살푸리는 장단이나 선율이 2分拍이나 진양은 장단이나 선율이 3分拍인 점이 다르다.

### 5. 맺 는 말

巫儀式에서 旋律樂器 접이들이 巫歌의 반주에 시나위를 演奏하는 地域은 京畿道 南漢江以南, 忠淸北道 西部, 忠淸南道, 全羅道, 慶尙道 西部로 시나위圈이라는 巫俗音樂圈을 이루고 있는데 이 地域 巫俗音樂은 巫歌의 旋律이 시나위목으로 되어 있다든가 旋律樂器가 巫歌의 伴奏로 시나위를 演奏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으나 한편 이 地域의 巫歌에 쓰이는 長短 이름을 보면 地域마다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 많아서 장단으로 따지면 시나위圈의 巫歌에도 地域的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나위圈 巫歌에 쓰이는 장단 가운데에서 중모리·중중모리·덩덕궁이(자진모리)·엇모리(가래조·시님장단·대왕놀이)와 같이 두루 쓰이는 장단을 빼면 京畿道 南部의 도살푸리·모리, 忠淸南道, 全羅北道의 안전반·살푸리, 全羅南道의 진양·동살푸리가 서로 다른 장단으로 남는다. 그런데 모리는 도살푸리의 끝에 붙는 것으로 獨立해서 쓰이는 장단이 아니며 안전반은 살푸리의 序의長短이며 진양 또한 동살푸리의 序의長短이다.

巫歌의 長短構成을 보면 京畿道는 가래조—도살푸리—모리—덩덕궁이로 되어 있어 도살푸리가 中心이 되고 忠南 全北은 안진반·외장구—살푸리—신님장단·덩덕궁이로 되어 있어 살푸리가 중심이 되고 全羅南道는 진양—동살푸리—덩덕궁이로 되어 있어 동살푸리가 中心이 된다.

도살푸리와 살푸리와 동살푸리는 주로 巫歌의 請神節次에 쓰이고 있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된다.

이들 장단의 音樂的 特徵을 보면 약간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 장단을 보면 도살푸리는 2分拍 6拍(4分の 6拍子), 모리는 3分拍 4拍(8分の 12拍子), 살푸리는 3分拍 4拍(8分の 12拍子), 안진반은 2分拍 4拍(4分の 4拍子), 진양은 3分拍 6拍(8分の 18拍子), 동살푸리는 2分拍 4拍(4分の 4拍子)로 되어 있어 모리와 살푸리, 안진반과 동살푸리, 도살푸리와 진양은 비슷하나 도살푸리와 살푸리와 동살푸리는 다르게 되어 있다.

그런데 旋律에서 巫歌辭說의 말 놓는 법을 보면 진양을 빼고 모두 2分拍으로 되어 있고 가끔 메리스마로 끝나나가게 되어 있는 점에서 같다.

살푸리와 도살푸리와 동살푸리의 장단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을지라도 이들 이름에 모두 살푸리라는 말이 끼어 있는 것은 그 旋律이 모두 시나위목(육자백이목)으로 되어 있고 또 말놓는 법이 2分拍式이며 메리스마를 가끔 다는 점에서 비슷한 旋律로 되어 있는 점, 또 이들이 모두 그 地域巫歌의 中心的인 장단이며 비슷한 巫歌절차에 쓰이는 점에서 같은 特徵을 갖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본디는 모두 살푸리라고 부르던 것을 장단의 차이가 있음을 구별하기 위하여 도살푸리·동살푸리로 나누어 부르는 것 같다. 실제로 도살푸리나 동살푸리도 그냥 살푸리라고 부르는 수가 있다.

한말로 말해서 다 같은 시나위圈의 巫歌에 속하지만 京畿道南部와 忠南·全北과 全羅南道の 巫歌에 나타난 地域的인 차이는 도살푸리 살푸리 동살푸리의 차이로 알 수 있겠다.